

## 6월2일은 투표하는 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1인 8표제 4장씩 2번에 걸쳐 투표

내달 2일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모두 8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2개, 시장과 지역구 시의원 선거 2개, 그리고 비례대표 시의원과 비례대표 구의원 까지 모두 8개의 선거를 치르게 된다. 특히 이번선거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도 함께 치르게 되는데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는 정당추천을 받지 않고 당적도 가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과는 무관한 선거이다.

이번 6.2지방선거는 8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투표사무원에 안내에 따라서 4장씩 4장씩 즉, 2번에 걸쳐서 투표를 하게 된다.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꼭 가져와야

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운전면허증 외에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이라면 본인확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먼저 1차 투표에서는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흰색은 교육감선거, 연두색은 교육의원선거, 하늘색은 지역구 시의원 선거, 계란색은 지역구 구의원 선거로 총 4장을 투

표하게 된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특정 정당 추천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투표용지와는 달리 기호와 정당이 인쇄되어 있지 않다.

### 투표 사무원 안내 받으면 쉽게 투표

#### 투표용지에 낙서하면 '무효처리'

가끔 기표과정에서 무효표가 생기는데 기표에는 원칙이 있다. 첫째,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한다. 둘째, 기표란 안에 정확히 찍어야 한다. 기표가 기표란 밖에 찍힌 경우와 투표용지에 낙서하거나 한 투표 용지에 두 사람 이상을 기표한 경우 등은 무효 처리된다.

투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차 투표는 연두색 함에 집어넣게 된다. 기표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2차 투표용지는 흰색(시장선거), 연두색(구청장 선거), 하늘색(비례대표 시의원 선거), 계란색(비례대표 구의원 선거) 모두 4장을 받게 된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와 구분되기 때문에 기표소도 따로 사용하게 된다. 2번의 투표를 하는 만큼, 투표용지도 2차례, 기표소도 2곳, 투표함도 2곳으로 나뉘게 있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 1명이 8표의 선거를 하게 되는 1인8표제이다. 투표사무원의 안내를 잘 따라주면 복잡하지 않게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구명	건물명	소재지
대연1동	제1투 에관스아파트 주차장 (1층)	대연1동 1740-13
	제2투 보림빌라 주차장 (1층)	대연1동 1724-9
	제3투 동경나이스빌라 주차장 (1층)	대연1동 1750-3
대연2동	제1투 남부체육관 (1층)	대연2동 1614-8
	제2투 대연2동 주민센터 (1층)	대연2동 1241-2
	제1투 여성회관 예식장 (1층)	대연3동 38-1
대연3동	제2투 강원유리 (1층)	대연3동 242-26
	제3투 대연3동 주민센터 (1층)	대연3동 427-31
	제4투 대천초등학교 (1-4교실)	대연3동 567
대연4동	제5투 남천중학교 (2-1교실)	대연3동 455-12
	제6투 삼익그린아파트 노인정 (1층)	대연3동 245-23
	제1투 부산공업고등학교 (3-2교실)	대연4동 918
대연5동	제2투 대연4동 주민센터 (1층)	대연4동 1090-14
	제3투 백합유치원 (1층)	대연4동 1172-135
	제4투 석포초등학교 (1-1교실)	대연4동 969-17
대연6동	제1투 대연5동 주민센터 (1층)	대연5동 1463-1
	제2투 대연초등학교 (1-4교실)	대연5동 289-15
	제3투 대연초등학교 (1-1교실)	대연5동 289-15
대연7동	제1투 남구청 강당 (1층)	대연6동 1268-1
	제2투 남구보건소 민원실 (1층)	대연6동 1268-3
	제3투 중앙고등학교 (1교과실)	대연6동 1778-1
용호1동	제1투 백운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용호1동 731-2
	제2투 용호초등학교 (1-6교실)	용호1동 75-1
	제3투 용호초등학교 (1-5교실)	용호1동 75-1
용호2동	제4투 용문중학교 (3-1교실)	용호1동 246-1
	제5투 일신빌 II 아파트 (제력다련실)	용호1동 일신빌2차 아파트
	제6투 분포초등학교 금식실 (1층)	용호1동 176-68
용호3동	제7투 분포중학교 무용실 (1층)	용호1동 176-67
	제8투 용문초등학교 (1-3교실)	용호1동 176-47
	제9투 용문초등학교 (1-4교실)	용호1동 176-47
용호4동	제10투 GS자이아파트 사설학원실 (1층)	용호1동 197
	제1투 용호2동 주민센터 사무실 (1층)	용호2동 517-19
	제2투 용호시장 소경당 (3층)	용호2동 516-10
용호5동	제3투 운산초등학교 (1-1교실)	용호2동 776
	제4투 SK뷰아파트 화이트나센터 미디어룸 (1층)	용호2동 944

### ■ 특별칼럼

## 투표참여로 공명선거 이룩해야



송창기

다가오는 6월 2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 선거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모두 8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만큼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바르고 깨끗한 공명선거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지이자 모든 국민의 여망이기도 하다. 선거란, 대표자 또는 공직자를 뽑는다는 의미로서 특히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국민의 주권 행사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의 주권익, 투표참여, 책임의식 고취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견해를 하나로 모아 가는 타협의 정치이다. 국민의 대표자 또는 공직자를 표로 지지해서 선출하는 대의정치인 법의 실현 수단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선거제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현실적으로 정치발전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깨끗한 선거 즉,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중립적인 선거관리기관이 존재해야 하고 둘째는 근대화된 정당이 존재해야 하며 셋째는 건전한 민주주의 정신을 갖는 입후보자 및 유권자 등의 선거주체가 존재해야 한다. 공명선거

란 유권자의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선거로서 선거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상기 선거주체를 모두가 선거규정을 준수해야만 할 것이다.

한편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행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따라서 국민통합과 정치적 이익의 조화 매개체로,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정책과 후보자를 제시해서 유권자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그 결과 공직을 획득하여 정권을 잡고 연장하려 한다. 결국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 정당이다.

이러한 정당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이익과 요구를 대신 표현하며, 다양한 요구들을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여론을 취합해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국민에게 제시하여 각종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선거의 경쟁에 참여해서 정권을 획득, 자당의 정당·정책을 펼쳐 나간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거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정치선진국들처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공명선거는 누구라도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선거문화는 깨끗하지 못한, 그저 당선만 되면 그만인 선거, 정권만 획득하면 그만인 선거로 점철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명선거 실현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는 ① 공정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존재 ② 근대화된 정당(도당, 시당과 다름) ③ 사법기관인 법관의 권위있는 선거법 해석 ④ 민주적인 생각과 주권의식을 가진 유권자가 주권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투표참여 등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는 “공명선거의 최후의 보루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선거법 위반자를 반드시 투

표로 심판해야 하고 배척하는 선거풍토를 조성·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며, 투표율을 높여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배제시키는 동시에 민주 시민으로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고하는 건전한 정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신고번호 : 국민없이 1588-3939)

특히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8장으로 투표소에서 1차투표는 부산시교육감, 부산시교육의원, 지역구부산시의원, 지역구남구의원을 먼저 투표하고 2차투표는 부산시장, 구청장, 비례대표부산시의원, 비례대표구의원을 연이어 투표하게 되므로 유권자는 이점 착오 없이 적극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반면 후보자와 정당은 “우선 당선주의” 사고방식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사법기관은 정치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소신껏 선거법위자에 대해서는 기소와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선거주체들이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반드시 공명선거문화를 이룩하겠다는 의지대로 실천한다면 그에 따른 올바른 후보자가 당선될 것이고 정치적 부정부패도 그만큼 선거, 정권만 획득하면 그만인 선거로 점철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유권자 및 후보자가 솔선수범하고 모범적으로 선거과정을 선도해 나가야 공명선거문화가 빨리 이룩될 것이다. 잘못된 선거관행은 후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고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우공과 같은 높은 의지를 갖춘 지도자를 선출하여, 우공처럼 쉽지 않은 선거문화를 함께 시정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깨끗한 공명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장애인 투표편의 지원

#### 선거당일 차량 운행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에게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투표 당일 차량지원 등을 신청한 주민에 한해 차량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차량지원 신청은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내달 2일 오후 6시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투표 당일 차량을 이용해 거주지에서부터 투표소까지, 투표소에서 거주지까지의 왕복이용과 투표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준다. ☎633-7656, 9372

### 무투표안내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부산광역시회의의원선거 남구제3선거구(용당·감만1·2·우암1·2동) 및 남구청장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수가 1인뿐이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회의의원선거 남구제3선거구(용당·감만1·2·우암1·2동) 유권자는 1인 6표(구청장·지역구 시의원 투표안함), 나머지 지역 유권자는 1인 7표(구청장 선거 투표안함)를 행사하게 됩니다.

☞ 용당·감만1·2·우암1·2동 유권자는 1차에 3장, 2차에 3장을, 나머지 지역의 유권자는 1차에 4장, 2차에 3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선거법 Q & A

#### 민주주의 꽃 선거

Q.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인이 8표를 투표한다고 하는데, 선거종류와 투표시간 등 투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인이 8표를 투표하며, 투표소에서 1차와 2차로 나누어 네 장씩 두 번 투표하게 됩니다.

1차 투표에서는 부산시교육감선거, 부산시교육의원선거, 지역구 부산시의원선거, 지역구 구의원선거의 투표를 하며 2차 투표에서는 부산시장선거, 구청장선거, 비례대표 부산시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의원선거의 투표를 합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만 □□세 이상(1991. 6. 3.이전 출생자)이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여 가실 때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등)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은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나와 가족을 위해 꼭 투표에 참여하세요.

### 들발 퀴즈 : 위의 밑줄친 답변 내용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① 19 ② 20

- ▶ 정답은 6월호에 게재합니다.
- ▶ 응모기간 : 2010. 6. 11.까지
- ▶ 응모방법
  - 이메일(showwoo@korea.kr)
  - 우편엽서(608-844 남구 우암중앙길 104 남구선거관리위원회)
- ▶ 응모자는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지난호 정답 : ② 5억
- ▶ 당첨자 : 최종대(대연4동), 전우진(용호3동), 김경희(용호3동)
- ▶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 그 동안 선거법 Q&A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남구신문과의 계약종료로 다음 호부터는 선거법 Q&A가 게재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남 구 선 거 관 리 위 원 회

## YES 노인사랑! NO 노인학대!

### 노인학대 상담 / 신고전화

☎1577-1389(24시간 운영)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교지도자 대국민 호소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선거를 이룩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당선 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당선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규범이 되어야 하며, 결과와 더불어 과정이 중요시되고, 때를 보다는 상생의 원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권자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는 바로 투표할 때입니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덟 장의 투표지로 지방자치와 교육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정책과 정견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소극적인 참여보다는 소신 표표를 통하여 유권자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함으로써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7대 종교 지도자들은 6.2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첫째,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한 바르고 깨끗한 선거 풍토 정착을 위하여 우리 모두 적극 노력합시다.

둘째, 올바른 선택을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후보자의 정책·정견을 꼼꼼히 살펴보는 소신 투표에 우리 모두 적극 참여 합시다.

셋째, 유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지방선거가 되게 합시다.

2010. 5. 10

####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의장 이 광 선(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공동 대표 장 승(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공동 대표 김 회 경(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대주교)  
공동 대표 김 주 원(한광교 교정원장)  
공동 대표 최 근 덕(유교 성공관장장)  
공동 대표 임 승 경(천도교 교령)  
공동 대표 한 양 형(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